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30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11월은 '위령의 달'입니다.

안내 :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 11/1(수): 모든 성인 대축일
- 11/2(목): 위령의 날, ※ 미사 - 성당
- 11/4(토):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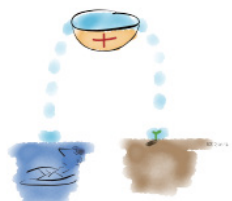
#### 11월 첫주간 신심미사

- 성모신심미사 : 11/4(토) 오전 10:00, 묵주기도와 함께 하는 미사

11/5(주일) 하절기 시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시간 변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 목자의 소리



"물은 죽음의 상징으로 '나의 회개'를 통하여 더 큰 '나'에게 개방되도록 초대하는 것인 동시에, 생명의 상징,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모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에 담그는 행위들 통하여 세례성사는 신앙의 율화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빛, 42행 | 그림 임의준 신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59	37	197	217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 주	문예나 요안나	이원준 요한
차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최은미 아네스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차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헌금 봉사자

금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22	48명	300달러	780달러
김진미, 현교정, 박재천 (총 3세대)			

### 연중 제30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0월 29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성자의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 그림 묵상

####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마태 22,37-39)

어느 누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쁘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2,20-26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1,5-10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34-40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이웃 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



사도 바오로는 두 번째 전도여행 중 테살로니카를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을 찾아가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 공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들로 그들과 토론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감복시킵니다. 특히, 하느님을 섬기던 그리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오로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군중을 선동하자 결국 바오로는 테살로니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사도 17,1-9 참조)

3주간의 짧은 가르침만을 남겨두고 바오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강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제2독서가 이야기하듯이 환난이 닥쳤을 때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바오로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 온 지방의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기쁘 나머지 바오로는 편지를 써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이 참으로 살아 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고 있음을 칭찬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테살로니카 1서입니다.

테살로니카 1서를 읽다 보면 믿음이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하며 참된 하느님을 섬기는 것,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고 하느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1테살 1,10) 믿음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곧 하느님을 섬기고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오로도 유대인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란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충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제1독서는 이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이, 곧 하느님께 충실한 이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

대하지 않고, 과부나 고아를 억누르지 않으며,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더라도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고 그에게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됩니다. 이웃의 곁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항상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충실한 이들이 행해야 할 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 하느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희망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만이 진정 하느님을 희망하는 이고, 하느님을 믿는 이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믿는 이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요약하시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언급하신 것입니다.

오늘 독서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로서 다시 한 번 오늘 제1독서가 알려주는 구체적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곧, 아버지에게서 배워 이웃을 자비로이 대하도록 합시다.(마태 18,33)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자비로이 대하며 사랑할 때 하느님에 대한 우리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망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마태 5,16) 왜냐하면 오늘 복음 환호송이 노래하듯이 우리가 믿음, 희망,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요한 14,23)



### 인호(印號)

견진성사 중에 주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견진 받을 이의 이마에 십자 모양으로 축성 성유를 바르며 “(아무개)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도장, 인장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인호’는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과 보증을 의미합니다. 인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과,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럼 언제 인호가 새겨질까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때에 영적 ‘인장’ 곧 인호가 새겨집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혼에 지워지지않는 인호를 새기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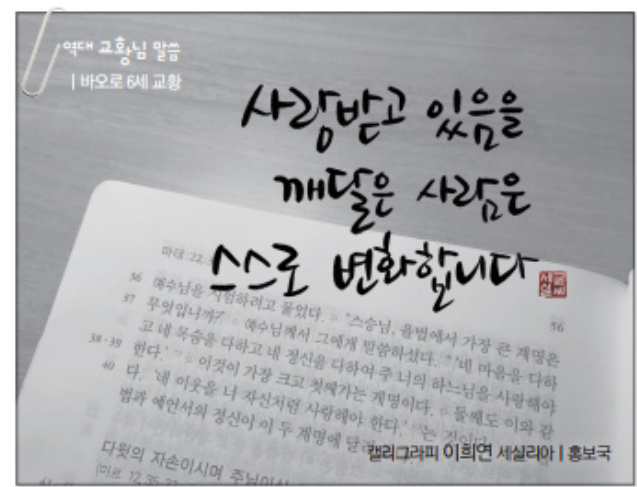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는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품성사도 그 수품자에게 지울 수 없는 인호를 새깁니다. 누군가의 자녀라면 ‘이따금’ 또는 ‘일부만’이 아니라 언제나 온전히 그들의 자녀이듯,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는 영구히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며 그분의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품성사도 은퇴할 때까지는 수행하는 직업이 아니라 철회할 수 없는, 선물 받은 은총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성사의 효력을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수용, 소명, 보호의 형태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호가 새겨지는 이 세 성사는 반복해

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74항은 인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인호’는 성령께서 ‘속량의 날’(에페 4,30)을 위하여 우리에게 찍어 놓으신 표지이다. 과연 세례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다. 끝까지 인호를 간직한, 곧 자신이 받은 세례가 요구하는 것에 충실한 신자는,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세례 때에 고백한 그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의 완성인 지복 직관(至福直觀)을 바라면서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인호를 받은 사람이 성사를 통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끼며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환영받을 것입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 결국

첫째 화살도 사랑  
둘째 화살도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군요.  
간단해 질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해주어야 합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마태 22,40)

